



주 제:	“ 모든 이의 종 ”	“ 연중 제 29 주일 ”	2009 년 10 월 18 일
복음 묵상:	[마르 10,35-45]	[이사 53,10-11]	[히브 4,14-16]

<바보 목록> 이라는 글에는 진짜 바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남의 욕을 많이 하는 사람,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사람, 자기의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사고의 깊이보다 목소리가 더 큰 사람, 얕은 이치를 깨닫고 성자가 된 듯이 날뛰는 사람, 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조금 쉬우면 시시하다 하고, 조금 어려우면 포기하는 사람, 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자신이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 자신의 지혜가 짧은 줄도 모르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설교하는 사람, 조그만 일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큰것만을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주장은 열심히 피력하고 남이 이야기 할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자기보다 조금 못나 보이면 경멸하고, 조금 나아 보이면 주눅드는 사람, 절대로, 죽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등 극단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은 분명 똑똑한 사람들이 적어 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똑똑한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희생하며 바보처럼 살고자 하는 종이 없어서 고달픈 것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비규환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르 10,43-44)

‘케롤 워머’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받은 자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죄인이었음을 속삭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을 선택했노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노라고, 강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힘주시기를 기도하노라고.”

세상은 남을 섬기는 종들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겸손되어 희생하는 의로운 하느님의 종이 많아야 세상은 진정 더욱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배 광하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주 예로니모 단장님과 도미니카 자매님 10/16 부터 10/27 까지 여정으로 한국에 다녀오십니다. 여행중에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되시길 기도합니다. 단장님이 안제신 동안에는 필립보 네리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정상준 마이클 형제님 10/20 (화) 2 주간 여정으로 한국에 갑니다. 여행중에 주님과 함께 좋은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신행주 요세피나 자매님이 건강이 좋지못해 앞으로 한달 정도 미사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건강을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청해 주십시오.
- 조정자 율리아나 자매님은 10/2 일 부터 10/30 까지의 여정으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투병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예수 고난회 강수근 신부님 초정 일일 성가 피정

- 누가: 예수 고난회 강수근 신부
- 언제: 2009 년 10 월 31 일(토) (8:30 AM- 6:00 PM)
- 어디서: San Francisco

성탄 성가 연습

- 11 월 1 일부터 교중 미사후 오후 연습을 시작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37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3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39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40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41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42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43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44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1분 명상

♡” 의자를 놓는 마음으로... ” ♡

낙엽 지는 숲 속에 의자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만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만 산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의자를 놓아두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노력으로 이 세상에 그만큼의 기쁨을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나눔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것을...

내 좋은 생각의 힘이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한번 손을 내밀 줄 아는 여유로,
스스럼 없는 작은 손길로,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나 하나는 아주 작지만,
그렇게 퍼져 나가는 작은 기쁨은 세상을 가득
채우겠지요...

오늘의 말씀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전디어
뵙니다(1 코린 13.7).”